



박주영·곽태휘 골
'공한증' 계속된다

동아시아축구선수권 한국, 중국 3-2 제압... 30년간 '불패신화' 이어

박주영과 곽태휘의 통쾌한 득점포가 폭발한 허정무호(號)가 적지에서 보란듯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중국 충칭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개막전에서 개최국 중국을 맞아 박주영이 전반 선제골과 후반 동점골, 곽태휘가 후반 인저리타임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린 데 힘입어 후반 초반 파상공세로 두 골을 뽑아낸 중국을 3-2로 제압했다. 한국은 1978년 방콕아시안게임 1-0 승리 이후 중국에 한 번도 지지 않는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중국 축구는 30년간 계속된 공한증(恐韓症)에 몸서리쳐야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1위 한국은 중국(FIFA 랭킹 75위)과 역대 전적에서 16승11무로 절대 우위를 지켰다. 한국은 2003년 첫 대회 우승 이후 5년 만에 동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환상 출발을 알렸다. 태극호는 초반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폈다. 제대로

된 슈팅은 전반 30분밖에 나왔다. 2선의 김남일이 물에 젖은 그라운드를 감안하고 때린 왼발 땅볼 슈팅이 골포스트를 살짝 빗겨나갔다. 기다리던 골은 박주영의 머리에서 터졌다. 전반 42분 왼쪽 골라인까지 파고든 염기훈이 수비수 장수아이를 앞에 놓고 감각적인 찌어차기로 왼발 크로스를 올리자 골지역 오른쪽에 도사리고 있던 박주영이 반 템포 빠른 점프로 수비수 순시앙을 따돌렸다. 순시앙의 등 뒤에서 점프한 박주영은 날아오는 볼 궤적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헤딩슛을 꽂았고 골키퍼 중재이가 손 쓸 틈도 없이 골문 오른쪽 상단을 흔들었다. 그러나 홈 그라운드에서 중국의 반격도 거세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공세를 편 중국은 주위의 헤딩슛을 정성룡이 선방으로 쳐내자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후반 2분 코너킥에서 수비진이 볼을 쳐내자 중원에서 달려들던 저우하이빈이 강력한 오른발 캐년슛을 꽂았다. 정성룡이 몸을 날렸지만 꺾을 수 없었다. 계속 흔들린 허정무호는 역전골까지 내쳤다. 후반 16분 왕동의 프리킥이 날아오자 류젠이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또 박주영이 위기를 돌파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후반 20분 페널티지역 우공간 외곽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은 박주영은 오른발로 볼을 매끄럽게 감아쳤다. 정확히 발 안쪽 엄지발가락 부근에 감긴 볼은 예리한 포물선을 그리며 크로스바 밑등을 때리고 그물을 휘감았다. 2-2가 되자 허 감독은 장신 고기구를 투입했다. 막바지 공세를 편 한국은 후반 42분 곽태휘의 헤딩슛이 파울로 노골 선인되면서 무승부에 만족하는 듯했다. 마지막 순간 중국 격파의 선봉장은 허정무호 1호골의 주인공 곽태휘가 맡았다. 공세에 가담한 곽태휘는 후반 인저리타임 2선에서 뛰어들다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포를 쏘았고 순간적으로 구멍이 난 중국 골문 오른쪽을 시원하게 꿰뚫었다. 공한증 탈출을 외쳤던 중국 치우미들은 30년 징크스에 고개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곽태휘

박주영

'골 넣는 수비수' 허정무호 황태자로 급부상

■ 결승골 곽태휘

549분 골 기쁨을 한 방에 해결했던 곽태휘(27·전남 드래곤즈)가 허정무호(號)의 '확실한 불부침'으로 떠올랐다. 곽태휘가 후반 인저리타임 환상적인 결승골 한 방에 중국 축구는 30년 간 시달려온 공한증(恐韓症)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

감해야 했다. 2-2 무승부에 만족하려 했던 스탠드의 광적인 중국 축구 팬 치우미(球迷)들은 곽태휘의 결정타에 숨을 죽이고 말았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후반 42분 중국 수비수와 경합 끝에 터트린 헤딩골이 심판의 파울 선언에 노골로 선인되면서 자칫 낙심할 수도 있었던 곽태휘는 기어이 골을 만들어 내어야 할겠다는 확신과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극적인 결승골을 뽑아내 프로와 대표팀 은사인 허정무 감독에게 선물을 했다.

역시 중국 킬러...오랜 슬럼프 끝 화려한 부활

■ 선제·동점골 박주영

박주영(23·FC 서울)이 명실상부한 '중국 킬러'임을 입증하며 토종 공격수의 자존심을 살렸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머리로 선제골을 폭발시켰다. 더욱이 이 골은 2년여 대표팀 경기에서 득점포 침묵을 이어가던 박주영의

부활포였다. 박주영은 1-2로 뒤지던 후반 20분 아크 오른쪽 바깥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오른발로 절묘하게 감아치고, 발등을 떠난 볼은 반대편 골문 구석에 그림같이 파고 들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중국 킬러'라는 별명을 확실하게 입증했고, 한국의 3-2 승리로 경기가 끝나면서 중국에는 3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지긋지긋한 '공한증(恐韓症)'을 안겨줬다.

KIA 디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김주형·나지완 '차세대 거포' 청백전서 나란히 홈런포 가동

KIA 타이거즈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재건 신호탄이 울렸다. 17일 KIA 자체 청백전에서 '차세대 우타 거포' 김주형과 나지완이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렸다. 이날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진행된 첫 자체 청백전에서 1회 청팀의 4번 타자로 나선 김주형은 이범석을 상대로 좌중간을 넘기는 시원한 투런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발목을 빼고 고전했던 김주형은 이날 큼직한 홈런으로 4번 타자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어 진행된 백팀의 공격에서도 김주형과 함께 KIA의 차세대 우타 거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나지완이 4번 타자로 출전, 오준형의 공을 좌중간 담장으로 넘기며 홈런을 주고 받았다.

청백전 명단이 발표되면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양팀의 4번 타자였다. 조범현 감독은 그동안 우타 거포감의 부재가 타선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장성호, 최희섭으로 이어지는 좌타자 라인에 우타자를 넣어 '좌-우-좌'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하는 게 조범현 감독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날 진행된 청백전은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됐다. 조범현 감독은 김주형과 나지완을 나란히 4번 타자로 기용했다. 두 선수는 첫 타석에서 홈런으로 '장군'과 '명군'을 주고 받았다. 이어 김주형은 두 번째 투수 진민호에게 내야 땅볼과 안타를 기록해 3타수 2안타의 성적을 냈다. 나지완은 볼넷과 내야 땅볼을 추가해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경기 결과는 김원섭의 센스있는 플레이와 이현곤



19일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펼쳐진 자체 청백전에서 홈런을 기록한 나지완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의 3루타 등을 앞세우며 3회 4점을 뽑아낸 백팀의 7대 3 승리. 선수들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우도록 하는 조범현 감독은 23살 동갑내기 김주형과 나지완의 스키줄을 함께 맞추는 등 주전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김주형은 여느 캠프 때보다 열성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면서 큰 일을 낼 태세다. 나지완도 만만치 않다. 보조 경기장을 7바퀴 도는 러닝 훈련에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주전 1등인 이용규에 이어 2등으로 들어

와 소문난 근성을 과시했다. 김주형과 나지완은 키가 185cm, 183cm으로 비슷비슷하다. 게다가 고교야구, 대학야구에서 파워 히터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파워도 비슷하다. 성격은 정반대다. 늘 싱글싱글 애교가 많은 김주형과 달리 나지완은 무표정에 무뎠직한 편이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KIA의 '클린업트리오'로 같다. 청백전 홈런을 시작으로 '클린업트리오'에 이름을 올리기를 위한 두 선수의 경쟁도 본격화 됐다. /wool@kwangju.co.kr

제인 박 2위·신지애 7위

LPGA SBS오픈...소렌스탐 우승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화려한 부활의 나래를 활짝 켜고 '한국남자' 들은 톱10에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소렌스탐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우쿠의 터틀베이지르토프골프장(파72·6천58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08년 시즌 개막전 SBS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재미교포 제인 박은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8언더파 208타로 공동2위에 올랐고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은 7언더파 209타로 공동5위를 차지했다.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도 6언더파 211타를 쳐 7위에 올랐고 김인경(20·하나금융)이 공동8위로 대회를 마쳐 '톱10' 11명 가운데 한국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골프 코노 회원권 소개
골프장 소개: 금강, 서해안
골프 회원권: 3,500
골프 회원권: 1,700
골프 회원권: 4,400
골프 회원권: 1,900
골프 회원권: 6,400
골프 회원권: 2,100
문의: 1062351-0095